

복합추향보어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 ‘起來’와 ‘過來’를 중심으로

이화승*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起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 1.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의미자질
 - 2. ‘起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 3. ‘起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 III. ‘過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 1. 복합추향보어 ‘過來’의 의미자질
 - 2. ‘過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 3. ‘過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정보의 전달은 어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중국어는 형태적인 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담화에서 화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똑같은 방법과 어순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과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단위가 서로 상이한 어순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 ‘V+趨向補語+了’와 ‘V+了+趨向補語’ 구조에서 한국어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로 번역할 때 의미상 구별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 추향보어와 ‘了’가 포함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醒過來了’와 ‘醒了過來’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둘 다 ‘잠에서 깨었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의미적 변별자질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또 ‘走過來了’와 ‘走了過來’ 역시 ‘걸어오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두 문장의 뚜렷한 의미적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으며¹⁾ 실제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둘의 의미 차이를 모르고 혼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복합추향보어에 대한 연구는 추향보어 자체에 대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순에 관해서는 추향보어와 목적어의 위치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순의 차이, 추향보어를 포함한 문장에서 ‘了’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별자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II. ‘起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1.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의미자질

《漢語大辭典》에서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用在動詞或形容詞後，表示動作或情況開始并且遞進。
- ② 用在動詞後，表示向上，動作完成或達到目的。

1) 필자가 2012년 1월 中國 福建城 福州에서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상대로 직접 인터뷰한 결과 모국어 화자조차도 ‘醒過來了’와 ‘醒了過來’, 그리고 ‘走過來了’와 ‘走了過來’의 의미적 변별자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마치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잠에서 깬다’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걸어왔다’와 ‘걸어서 왔다’의 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了’의 위치가 분명 다르게 나타나며 두뇌에서 처리하는 의미적 차이 또한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現代漢語八百詞》에는,

- ① 表示人或事物隨動作由下向上。
- ② 表示動作完成, 兼有聚攏或達到一定的目的, 結果的意思。
- ③ 表示動作開始, 并有繼續下去的意思。
- ④ 形+起來。表示一種狀態在開始發展, 程度在繼續加深。

동사와 결합하여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하거나 동작의 시작, 완성, 지속과 결과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적극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의 발전, 정도의 계속적인 심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²⁾

劉月華(1998)에 따르면 추향보어 ‘起來’는 네 가지의 의미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추향의미’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둘째, ‘결과 의미’는 ‘모이다’ 혹은 ‘갑자기 생겨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셋째, 상태의미는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이나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 의미는 ‘어떤 방면에 대하여 평가하는 의미’를 언급하였다.³⁾

반면에 胡裕樹·范曉(1993)은 동사 뒤에 따라오는 ‘起來’의 용법을 방향적 용법과 비방향적 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비방향적 용법을 ‘동작의 시작과 지속’, ‘동작 행위의 완성’, ‘견해나 조건’, ‘상태의 시작이나 발전 변화’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⁴⁾

崔圭鉢(2006)은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에서 ‘起來’를 ‘起來₁’, ‘起來₂’, ‘起來₃’의 세 가지로 나누어 ‘起來₁’은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來’로 인하여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起來₂’는 은유를 통한 의미 확장을 거쳐 시간 속에서 사건의 어떠한 전개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 ‘起來₃’은 한층 더 문법화되어 높은 주관성의 의미를 지니며 시간성이 없다고 하였다.⁵⁾

2)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 441-442쪽.

3) 劉月華, 《趨向補語通釋》, (「趨向意義(表示通過動作使人或物體由低處向高處移動), ‘結果意義’(表示結合以至固定, 表示突出、隆起), ‘狀態意義’(表示進入新的狀態), ‘特殊用法’(從某方面說明、評論人或事物, 引進說話人的一種看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8), 341-380쪽.

4) 胡裕樹·范曉, 《動詞研究》, 上海教育出版社, 1993, 110-117쪽.

5) 崔圭鉢,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中國語論叢》, 2006.

본고에서는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의미적 특성을 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향적 의미⁶⁾에 초점을 맞추되 실제 이동의 의미를 지닌 경우 구체적 추향의미로, 관념상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추상적인 추향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추상적 추향 의미를 다시 相적인 특성에 맞추어 ‘동작의 시작과 지속’, ‘상태의 지속과 발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되 연구의 초점이 ‘起來’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아내는 데 있으므로 ‘了₁’과 ‘了₂’의 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할 것이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도입하여 ‘了’가 위치를 달리하는 기제를 찾을 것이다.

첫째,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사유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상성⁷⁾의 개념을 분석의 토대로 삼아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도상성이 객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를 반영하는 인지적 기제라고 본다면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원리가 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도상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시간순서원칙(The principles of temporal sequence, 이하 ‘PTS’로 약칭함)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도상성 가운데 ‘순서적 도상성(temporal iconicity)’과 관련 있다. ‘순서적 도상성’의 각도에서 통사 단위의 배열 순서를 분석한 것은 Tai(1985)가 대표적이며 이는 시간의 선후관계나 우선성의 정도가 중국어의 어순을 반영한다는 논리로서 戴浩一(1988)에서도 자세히 연구된 바 있으며 두 어법 단위의 상대적인 순서는 그 어법 단위가 나타내는 개념 영역안의 상대적 시간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⁸⁾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了’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학

6) ‘方向的 의미’는 ‘어떤 뜻이나 현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을 의미하지만 이동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으며 ‘趨向的 의미’는 여기에 이동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용어의 사용을 ‘趨向的 의미’로 하고자 한다.

7) Peirce(1932)는 『Principles of Philosophy』에서 언어에서 도상성이란 언어 구조 속에 개념 구조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첫째, 도상성은 언어의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내는 사물간의 유사성이며, 둘째,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 나타나는 유사성이며, 셋째, 언어구조와 개념구조간의 유사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상성은 다시 모방적 도상성과 구조적 도상성으로 나누고 구조적 도상성은 양적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에서 재인용 하였다.

8)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 1988년 제1기.

교문법에서 ‘了₁’은 동태조사로서 술어 뒤에서 완성을 의미하며 ‘了₂’는 어기조사로서 문장 맨 끝에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추향보어 구문에서 ‘了’가 위치를 달리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了’가 어떻게 술어와 보어를 관할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有界作用’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⁹⁾ 대부분의 동작동사는 모두 [-有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有界]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을 시간적 선상에서 볼 때 동작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吃’는 [-有界]이지만 ‘吃了’는 [+有界]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또 술목 구조에서도 적용되는데 ‘吃了飯’은 [+有界/-有界]이지만 ‘吃了一碗飯’은 [+有界/+有界]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有界/+有界]의 경우만 문장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了’가 이와 같은 ‘有界作用’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을 알아보겠다.

2. ‘起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起來’가 추향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이동’인 경우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站’, ‘立’, ‘坐’, ‘爬’, ‘飛’ 등과 같이 방향성과 운동성의 의미를 포함한 동작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자세 변화의 원형적 의미를 지닌 ‘起來’와 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 (1) a. *他站。
 b. 他站了。¹⁰⁾ (그는 일어섰다)
 c. 他站起來了。(그는 일어섰다)
 d. 他站了起來。(그는 일어섰다)

동사 ‘站’은 지속동사이다.¹¹⁾ 지속동사는 시간적 선상으로 볼 때 동작의 시작점

9) ‘有界’‘無界’이론은 沈家煊(1995)가 주장한 것으로 사람들이 사물이나 사건을 인지하는 데는 공간적인 ‘有界’와 ‘無界’가 있으며 시간적인 ‘有界’와 ‘無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나 양의 정도를 인지하는데도 ‘有界’와 ‘無界’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10) 이 문장에서의 ‘了’는 ‘了₂’로 본다.

11)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馬慶株(1981)의 동사분류에 근거하였다.

1. 비지속 동사 : 死類- 死, 完, 來, 去, 知道, 明白 等

과 종료점이 불분명하므로 [-有界]의 성질이 있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시간요소가 결핍되면 비문이다. 따라서 (1.a)가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과 달리 (1.b)는 ‘了’를 동반하므로 해서 하나의 사건이 성립하게 되고 이는 곧 시간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동작의 완성은 하나의 사건이 끝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하면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了’가 [-有界]의 성질을 [+有界]의 성질로 바꾸는 기능에 착안하여 위의 예문과 연관 지어 보면 (1.c)는 전체 사건에 [+有界]을 부여하며 (1.d)는 앞 동사 ‘站’에 한정하여 [+有界]의 개념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d)는 ‘了’로 인하여 ‘站’의 동작에 [+有界]이 부여된 후 뒤이어 ‘起來’한 또 다른 상황이 부가된 것이다.

- (2) a. 大家都已經站起來了。¹²⁾ (모두들 이미 일어났다.)
 b. 5年后老人終於又站起來了。(5년 후에 노인은 마침내 다시 일어났다.)

劉月華(1998)에 따르면 ‘了’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와 뒤에 놓일 때 의미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앞뒤에 주어지는 ‘語境’에 따라 ‘了’의 위치가 자유롭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了’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는 묘사적 성분의 狀語가 술어 앞에 놓이며 ‘了’가 추향보어 뒤에 놓일 때는 술어 앞에 ‘已經’, ‘早就’, ‘終於’, ‘自然’, ‘是’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긍정의 어기가 온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 (2.a)(2.b)는 술어 앞에 ‘已經’, ‘終於’등이 동반되어 이미 완성된 어기를 나타낸다는 劉月華의 주장에 부합되며 ‘了’가 문장 끝에 위치하여 변화의 어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

- (3) a. 可惜那黑袍老人已經站了起來, 頭也不回地走了。(아쉽게도 그 검은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은 이미 일어서서,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떠났다.)

2. 강지속 동사 : 等類- 等, 坐, 站, 想, 躺, 找 等
 3. 약지속 동사 (1) 看類- 看, 聽, 說, 吃, 買, 喝 等
 (2) 掛類- 掛, 開, 拿, 穿 等

12) 2012년 5월 현재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이하 CCL이라 약칭함)에서 추출한 예문이다.

- b. 她終於站了起來，離開了那死者。(그녀는 마침내 일어서서 그 죽은 사람 곁을 떠났다.)

위의 (3.a)(3.b)의 예는 劉月華의 주장에 위배된다. 종결의 어기를 가진 ‘已經’이나 ‘終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站了起來’의 형식으로 나타난다.¹³⁾ 그렇다면 이 두 형식간의 변별자질은 무엇일까? ‘站’은 ‘서다’의 의미로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의미 이외에 동작의 방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추향의 의미를 지닌 ‘起來’와 함께 쓰여 ‘수직 상승’의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了’의 위치에 따라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게 될까? 위의 예문은 ‘了’의 위치가 추향보어 ‘起來’의 ‘전’과 ‘후’에 위치를 달리하지만 의미상 공통적으로 ‘일어섰다’를 의미하므로 이는 통사적인 면에서 변별자질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PTS’에 근거하여 시간적으로 나열하면 (3.a)와 (3.b)는 ‘站’ 동작의 먼저 발생하고 ‘了’가 동작의 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연이어 ‘起來’ 동작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⁴⁾

다음의 예를 보자.

- (4) a. 她已經憤怒地站起來了。(그녀는 이미 짜증을 내며 일어섰다.)

13) 본고에서는 예문 추출을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에 근거하였다.(이하 CCL이라 약칭한다). CCL 검색결과에 따르면 ‘站起來了’는 총 360개, ‘站了起來’는 총 2530개의 예문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已經+站起來了’는 19개, “已經+站了起來”는 20개가 출현한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已經+站起來了’ 형식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 ‘終於+站了起來’의 형식도 다수 출현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숫자상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14) 이 부분에 관해서 ‘PTS’에 따라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시간 개념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의 개념으로 본다. 즉 고대에는 시간 개념이 ‘子時’, ‘丑時’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분’, ‘초’의 단위로 세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노(nano)’의 개념으로 까지 정교하게 세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두뇌 발전이 언어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張皓得, 〈중국어 ‘VP+PP’와 ‘PP+VP’에 보이는 통사적 변천의 규율과 방향〉, 中國語文論叢學會, 第12輯, 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b. 他終於滿臉通紅地站了起來。(그는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¹⁵⁾

(4.a)(4.b)는 공통적으로 종결형 부사 ‘已經’과 ‘終於’와 각각 묘사성 성분의 狀語인 ‘憤怒地’와 ‘滿臉通紅地’가 동반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劉月華(1998)의 “了”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는 묘사적 성분의 狀語가 동사 앞에 놓인다”는 주장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4.a)는 狀語 ‘憤怒地’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了’가 문장 맨 끝에 왔으며 (4.b)는 종결형 부사인 終於가 왔음에도 ‘V+了+起來’의 구조를 보인다.

‘PTS’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4.b)의 경우 먼저 ‘站了’의 동작이 완성되고 난 후 뒤이어 ‘起來’의 구체적인 동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동사 뒤에 따르는 ‘了’의 경우 동작의 完成을 의미하지만 이 完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4.b)의 경우 ‘站’ 바로 뒤에 ‘了’가 뒤따라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암시하며 뒤이어 ‘起來’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了’의 ‘有界作用’이 ‘站’에만 영향을 주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되었는지 종결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5) a. 只用一个手指扶着她, 她就從椅子上站起來了。(단지 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니 그녀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b. 想到這儿, 他又坐不住了, 從椅子上站了起來。(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5.a)(5.b) 또한 두 문장 모두 술어 앞부분에 ‘從椅子上’의 개사구가 위치하여¹⁶⁾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향’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자에

15) 이 예문의 경우 ‘站起來了’와 ‘站了起來’를 똑같이 ‘일어섰다’로 번역한 것은 두 문장 간에 의미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일대일로 호응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네(긍정의 대답)’에 일대일로 해당하는 어휘가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好不好?’로 질문했을 경우 ‘好’가 ‘네’에 해당하는 대답이 될 것이며 ‘對不對?’의 경우는 ‘對’, ‘是不是?’의 경우는 ‘是’가 ‘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두뇌에서 처리되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긍정의 대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이후 다른 예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본고는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한 경우 똑같이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6) 張皓得,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현대중국어 ‘Prep+NP’ 구조는 상(aspect)표

서 일어섰다’의 의미 이외에 다른 변별자질을 찾기가 어렵다. 즉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동작의 결과를 강조한 것인지 시작과 과정이 강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胡裕樹·范曉(1993)에 따르면 ‘V+起來+了’는 행위가 이미 완성된 것을 강조하며 비록 동작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결과는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V+了+起來’는 시작이 더욱 강조되고 동작의 과정이 드러나며 동작이나 상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⁷⁾ 그렇다면 (5.a)은 이미 일어난 동작의 결과를 강조한 것이며 (5.b)는 일어난 동작의 시작과 과정이 강조된 것이다.

또 (5.a)의 문장 끝의 ‘了’는 변화의 어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에 ‘有界作用’을 하므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있는 상태로의 변화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b)의 ‘了’은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의 관점에서 보면 ‘站’의 동작이 이미 완성되고 뒤이어 ‘起來’ 상황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劉月華·潘文娛·故韡(2001)에 따르면 ‘了’가 동사 뒤, 보어 앞에 오는 경우 ‘了’의 관할 범위는 앞 동사에 있으며 의미는 동작의 갑자기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了’가 보어 뒤에 오면 ‘了’의 관할 범위가 앞 동사-보어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¹⁸⁾ 다음을 예로 들었다.

- (6) a. 我走進教室后, 全体學生立刻站了起來。(내가 교실로 들어간 후 전체 학생들이 바로 일어섰다.)
 b. 我走進教室時, 看見學生已經站起來了。(내가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이미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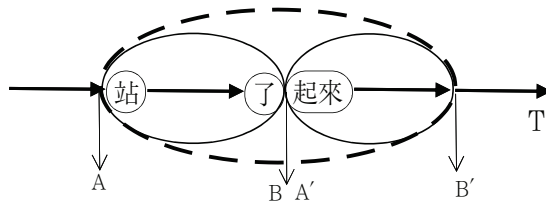
지와 보어구조가 출현할 때 위치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술어 앞에 위치한다.」. 동양학연구소, 2004.

17) 胡裕樹·范曉, 앞의 책: 「動詞加了“起來了”多強調行為已經實現。儘管行為尚未終止, 但已有結果。動語加“了”再加“起來”多強調開始, 顯示出動詞動作的進程, 動作或狀態仍在延續」, 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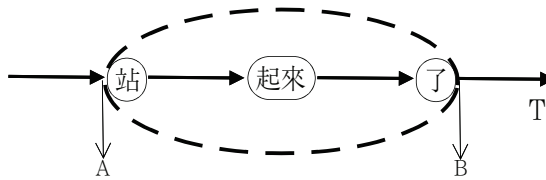
18)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当”了”出現動詞后補語前時, “了”的管轄範圍是前面的動詞, 作用在于表示動作的發生, “了”有突出動作發生的作用。当“了”出現有動補結構后時, “了”管轄的範圍至少是前面的動補短語, 作用在于表示動作結果的實現。」, (商務印書館, 2001), 575-576쪽.

(6.a)는 주어인 ‘我’가 본 것은 학생들이 일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하는 과정을 본 것이며 (6.b)는 학생들이 이미 일어서 있는 동작의 결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a)(6.b)를 순서적 도상성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站了起來’의 개념화 모형¹⁹⁾



〈그림2〉 ‘站起來了’의 개념화 모형



하나의 동작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다른 동작이 시작된 것은 동작의 시작과 과정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현장감과 연결되며 ‘일어나다’ 동작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 ‘T’는 시간의 흐름이며 ‘A’는 ‘站’동작의 시작점이며 ‘B’는 ‘了’의 유계현상에 따른 동작의 종료점을 의미한다. ‘A’는 또 다른 동작의 시작점을 뜻하고 B’는 전체사건의 종료점을 나타낸다. 실선의 작은 원은 하나의 사건이 종료됨을 나타내며 점선의 큰 원은 전체사건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하의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起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胡裕樹·范曉(1993)에 따르면 ‘起來’는 대부분 실제적인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引伸義로 많이 쓰였으며 이는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起來’의 의미 분류는 앞에 나오는 동사의 성질에 근거하는데 그 중 ‘동작의 시작’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4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²⁰⁾

- (7) a. 中國結束了屈辱的歷史，中華民族站起來了。(중국은 굴욕적인 역사를 마감하고 중화민족은 일어섰다.)
 b. 新中國終於站起來了。(신중국은 마침내 일어섰다.)

(7.a)(7.b)의 경우 주어인 ‘中華民族’과 ‘新中國’의 술어인 ‘站’은 의미상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때의 ‘站起來了’의 의미는 추상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站了起來의 경우 CCL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V+了+起來’ 구조가 눈에 보이는 듯 생동감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방증이다.

- (8) a. 他笑了。(그는 웃었다.)
 b. 他笑起來了。(그는 웃기 시작했다.)
 c. 他笑了起來。(그는 웃기 시작했다.)

朱德熙(1982)의 《語法講義》에 따르면 (8.a)의 경우는 ‘웃지 않다’의 상태에서 ‘웃다’라는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할 뿐²¹⁾ 동작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8.b)와 (8.c)는 ‘起來’가 동사 뒤에 음으로서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지만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8.b)는 복합추향보어 ‘起來’ 뒤에 ‘了’가

20) 胡裕樹·范曉, 앞의 책, 111쪽.

21)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209-210쪽: 원문에서는 ‘他笑了’의 경우 동태조사 ‘了’와 어기조사 ‘了’가 융합된 형태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첫째, ‘웃지 않다’의 상태에서 ‘웃다’의 상태로 변화, 둘째, 방금 전에 ‘웃다’의 동작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정확한 문장형태는 ‘他笑了了’라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전자의 입장인 ‘상태의 변화’로 본다.

움으로 해서 ‘웃기 시작하다’ 동작의 종결점을 나타내므로 동작의 결과에 초점이 있으며 ‘了’가 문장 전체에 ‘有界作用’을 하며 반면에 (8.c)는 ‘笑’가 ‘起來’ 대신 ‘了’를 먼저 관할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起來’ 앞에 동작의 완성 표지를 나타내는 ‘了’가 위치함으로서 ‘了’ 뒤에 동작의 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起來’가 활성화 되어 청자로 하여금 보다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楊德峰에 따르면 ‘V+起來+了’는 의미의 중심이 ‘起來’에 있으며 ‘V+了+起來’는 의미의 중심이 ‘V’에 있는데 이 경우 동작에 갑작스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²²⁾ 그의 주장대로라면 (8.b)는 의미의 중심이 ‘起來’에 있고 (8.c)는 ‘笑’에 있으며 이때의 ‘笑’은 갑작스런 동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8.b)은 이미 일어난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8.c)은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미적 변별자질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가 발화시 두 문장 간에 두뇌에서 그러지는 현장감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9) a. 他開始笑了。(그는 웃기 시작했다.)
 b. 他開始笑起來了。(그는 웃기 시작했다.)

술어 ‘笑’를 중심으로 앞, 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술어 앞의 ‘開始’는 ‘시작하다’의 의미로 일종의 상적 속성을 지닌 부사로서 시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9.b)는 ‘시작하다’의 상황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어 뒤에 ‘起來’가 위치함으로서 시작의 의미가 더욱 활성화되고 동작의 시작과 종결점이 부각되고 있다. 시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상 종결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전제를 나타내는 술어 앞의 ‘開始’와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생동감이 내포되어 있는 ‘V+了+起來’ 구조와 의미상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중국어에서 ‘相’의 개념은 ‘duration’과 관련된 시간 개념으로²³⁾ 이는 표현에 있

22) 楊德峰, 〈‘動+趨+了’和‘動+了+趨’補議〉, 《中國語文》, 2001.

23)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大學印刷社, 2001, 256쪽: 원문에서는 動態範疇에 관하여 ‘動態(aspects)’는 時間과 관련된 어법범주이며 時(tenses)의 범주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주로 동작의 진행,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동작과 상태가 어떤

어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 시간을 정지시킬 필요가 생겼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고 또 다른 시작을 내포하는 ‘了_i’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笑’의 동작이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起來’의 개념이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보다 더 세분화되어 더욱 생동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되며 ‘笑’ 동작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CCL에서 ‘笑起來了’가 포함된 예문은 161개, ‘笑了起來’의 경우는 총1181개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숫자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동사 ‘笑’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자질로 볼 때 ‘결과’ 보다는 사실적인 ‘현장감’의 표현에 더 적절한 어휘에 해당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劉月華·潘文娛·故韡(2001)에 따르면 ‘起來’가 동사 뒤에 위치하면 동작의 시작과 진행을 나타내는데 즉 정태에서 동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형용사 뒤에 위치하면 새로운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법범주를 갖고 있지만 ‘起來’와 만나서 동사의 기능을 갖게 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의 ‘起來’의 파생의미는 劉月華가 분류한 네 가지 의미 중 ‘狀態意義’에 해당한다. 이때 ‘起來’의 의미는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과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靜態에서 動態로의 변화’를 뜻한다.²⁴⁾ 또한 ‘起來’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모종의 상태가 출현한 것을 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형태가 막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

‘起來’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며 형용사의 성질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변화함을 나타낸다.²⁵⁾ 또한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였을 경우 反而, 倒, 忽然, 一下子 등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대표적인 형용사 ‘好’와 ‘起來’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時段(duration)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開始 → 進行 → 完成

●—————●

時點 → 時段 → 時點

24) 胡裕樹·范曉, 앞의 책: 「起來用在動詞或形容詞后表示進入一個新的狀態。用在動詞后, 表示新的動作開始進行, 一般是由靜態轉變為動態。」, 364쪽.

25) 劉月華, 앞의 책, 369쪽.

- (10) a. 生意很快好起來了。(사업이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b. 生意慢慢就好起來了。(사업이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c. 生意漸漸好了起來。(사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위의 예문은 형용사 ‘好’와 ‘起來’가 만나 ‘좋아지기 시작하다’의 의미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起來’의 ‘시작하다’의 의미적 특성상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하지만 (10.a)(10.b)와 (10.c)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10.a)(10.b)는 ‘好起來’라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好起來’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好起來’한 상태로 변화된 결과가 더욱 부각된 표현이다.(10.c)는 ‘好’의 상태가 강조된 문장으로 ‘好’의 상태로 이미 진입하였으나 곧 또 다른 ‘起來’의 상황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好’의 상황이 더욱 세분화되어 마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과 같은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좋아지기 시작한 경로가 부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楊德峰(2001)은 〈動+趨+了〉和 〈動+了+趨補議〉에서 추향보어 앞에 ‘了’가 위치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령문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단독으로 묻고 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V+了+起來’ 형식이 현장감과 직결된다는 또 다른 방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의문문 형식은 존재 의미보다는 결과 의미가 강한 ‘V+起來+了’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 (11) a. 天氣暖和。(날씨가 따뜻하다.)
 b. 天氣暖和了。(날씨가 따뜻해졌다.)
 c. 天氣暖和起來了。(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d. 天氣暖和了起來。(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형용사는 변화 중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暖和’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11.a)는 날씨가 ‘暖和’ 하다는 현상만 나타낼 뿐 상적인 의미는 부여되지 않았으며 (11.b)는 ‘暖和’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暖和’상태로 변화한 결과만을 의미한다. (11.c)와 (11.d)는 추향보어 ‘起來’와 결합하여 동사의 기능이 생겨났으며 변화의 개념과 상의 개념을 동시에 부여 받았다.

먼저 (11.c)는 ‘暖和’ 상태에서 기동상의 ‘起來’가 동작의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상황을 문장 끝의 ‘了’가 ‘有界化’하여 결과가 강조되었다. (11.c)는 ‘暖和’ 상태로 변화된 후 연이어 다시 시작의 의미인 ‘起來’가 활성화된 경우이다. 즉 하나의 사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곧 인간의 두뇌에서는 현장감과 생동감으로 처리된다.²⁶⁾

Ⅲ. ‘過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1. 복합추향보어 ‘過來’의 의미자질

《漢語大辭典》에서 복합추향보어 ‘過來’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 ① 用在動詞後，表示來到自己所在的地方。
- ② 用在動詞後，表示回到原來的、正常的狀態。

《現代漢語八百詞》는

- ① 表示動作者朝着說話人所在地。
- ② 表示人或事物隨動作從一處到另一處。
- ③ 表示品到原來的、正常的或較好的狀態。

‘過來’는 사람이나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화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동작이 변화하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방향도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 ‘過來’도 역시 다른 복합추향보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추향의미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확대되는데 이때의 의미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의 변화’, ‘전부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보유하다’의 개념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

26) 이때의 ‘起來’는 구체적인 동작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상의 추상적인 방향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순서원칙에 따른 분석을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유추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념상의 이동이 생긴 것으로 본다.

미로 '過去'와 구별 된다.²⁷⁾

趨向補語 '過來'는 본래의 의미가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발전하는, 점진적인 변화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이나 시간 범주에서 이동을 표현할 때는 'A'에서 'B'로의 이동에 장소나 시점이 모두 적용되며 상태를 나타내는 범주의 이동 표현 역시 심리나 의식의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간상의 실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過來'의 경우 '恢復', '明白' 등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며 '醒'과 같이 동사의 의미 자체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립된 상태와 비교하여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경우 '過來'와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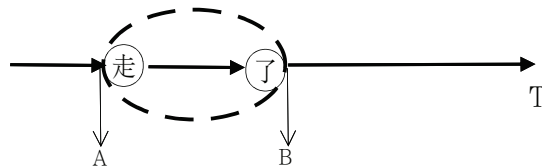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변화의 전후의 과정이 순간적이므로 변화의 과정이 길지 않지만 '過來'와 결합하여 경로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2. '過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 (12) a. 他們已經走了。(그들은 이미 갔다.)
 b. 他們已經走過來了。(그들은 이미 걸어 왔다.)
 c. 他們已經走了過來。(그들은 이미 걸어서 왔다.)

(12.a)(12.b)(12.c)는 완성, 종결 의미의 부사 '已經'이 술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了'의 위치에 차이를 보인다. (12.a)는 단순히 '走'의 동작이 완료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사 '走'의 의미 자체도 (12.b)(12.c)와는 상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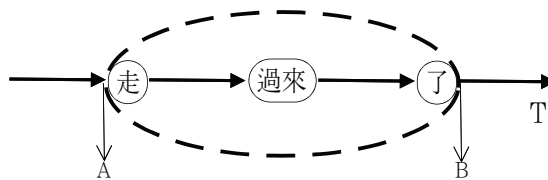
〈그림3〉 '走了'의 개념화 모형



27) 呂叔湘 主編, 앞의 책, 249-2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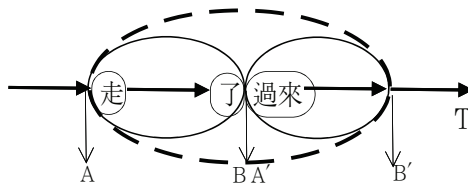
(12.b)는 ‘走와 過來’가 결합하여 동작에 경로가 부여되었다. 즉 ‘走過來’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走過來’ 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전체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나타낸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了’가 ‘走過來’ 전체를 有界化 하였기 때문에 ‘B’에서 하나의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림4〉 ‘走過來了’의 개념화 모형



(12.c)의 ‘了’는 이미 ‘走’의 동작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過來’ 동작이 연속된다. 따라서 아직 하나의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 그 동작의 추향을 나타내는 보어의 결합은 결국 두 개의 과정이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난 후 다른 과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하나의 과정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두 개의 과정이 모호하게 공존할 수도 있다.

〈그림5〉 ‘走了過來’의 개념화 모형



- (13) a. 突然，兩個年輕人走了過來。(갑자기 두 명의 젊은이가 걸어서 온다.)
 b. 慢慢地走了過來。(천천히 걸어서 온다.)
 c. 大踏步的走了過來。(큰 걸음으로 걸어서 온다.)
 d. 哼啊咳地、罵罵咧咧地走了過來。(쿵쿵 기침하며, 잔소리하며 걸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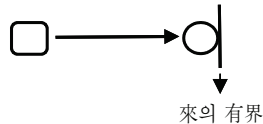
온다.)

위의 예문은 모두 'V+了+過來'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술어 앞에 부사어가 위치하고 있다. CCL에서 'V+過來+了' 형식은 162용례 나타나고 'V+了+過來' 형식은 500용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V+過來+了' 형식은 부사어 없이 바로 주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V+了+過來'은 주어가 바로 오는 경우는 없고 대다수 부사어를 동반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생동감 있는 표현, 사실을 묘사해야 하는 표현 등 언어구조가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14) a. 他們已經走了過來。(그는 이미 걸어왔다)
 b. 走了過來! (걸어 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了'의 '有界作用'의 관점에서 볼 때 '吃了飯去學校'는 옳은 문장인데 반하여 '*吃了飯'은 [+有界/-有界]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了'은 일반적으로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吃了飯'은 동작이 완성된 것을 의미할 뿐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아 후속되는 문장을 필요로 한다. (14.a)는 종결 표지를 나타내는 '已經'의 지배를 받아 상황이 이미 종결된 것이 분명하지만 (14.b)의 경우는 아직 '走'의 동작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는 '來'가 '了'와 같은 '有界作用'을 한 것으로 본다. 추향보어 '來'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來'의 有界作用²⁸⁾



28) '□'는 이동의 주체, '→'는 이동의 방향, '○'는 이동의 종점 혹은 목표를 뜻한다.

따라서 ‘了’와 ‘來’의 연속적인 ‘有界作用’으로 인하여 (14.a)보다 (14.b)의 문장이 생동감, 현장감과 직결되며 이는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명령문의 형식과 의미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3. ‘過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 (15) a. 她已經醒了。(그녀는 이미 깨다.)
 b. 她已經醒過來了。(그녀는 이미 깨었다.)
 c. 她已經醒了過來。(그녀는 이미 깨어났다.)

‘醒’은 ‘깨다’의 의미로 변화의 과정이 순간적이고 ‘過來’ 자체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잠에서 깨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추향보어로 쓰였다. 이러한 과정이 문장 끝의 ‘了’가 옴으로 해서 변화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완성과 종결의 의미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胡裕樹·范曉(1993)는 동작 동사가 ‘了’를 수반하여 어떠한 활동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동사가 지속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즉 그의 분류에 따르면 ‘醒’은 동태동사 중 순간 결과 동사에 해당되며 ‘醒了’는 어떤 정태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므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15.a)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15.b)는 순간동작인 ‘醒’이 ‘過來’를 동반하고 전체 사건이 문장 끝의 ‘了’로 인하여 ‘有界化’되었다. (15.c)는 ‘醒了’가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다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過來’를 통솔함으로 해서 현재 상태 변화의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경로가 부각되었다.

- (16) a. 那么, 今天都醒過來了嗎?(그렇다면, 오늘 바로 깨었나요?)
 b. 你醒過來了沒有?(당신은 깨어났나요?)
 c. *你醒了過來沒有?

楊德峰은 〈動+趨+了’和’動+了+趨’補議〉²⁹⁾에서 ‘動+趨+了’형식은 결과의 의

29) 楊德峰, 앞의 책.

미가 강하고 문장 끝에 ‘嗎’, ‘沒有’형식의 의문문이 성립할 수 있으며 ‘動+了+趨’는 추향동사의 존재의미가 강하고 명령문에 주로 쓰이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점도 역시 구조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쳤으며 그러한 통사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劉月華·潘文娛·故韞(2001)에 따르면 의문문 가운데 문장 끝에 ‘... ‘嗎?’가 오는 ‘是非問句’는 ‘嗎’ 앞에 어기조사 ‘的’, ‘呢’, ‘了’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황이 이미 실현된 경우라고 하였으며 ‘...沒有?’ 형식의 의문문도 사건이나 상태가 이미 실현된 경우나 이미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의문문에 사용된다’고 하였다.³⁰⁾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이 종결된 ‘V+過來+了’의 형식과 의미상 부합되며 (16.c)는 사건의 종결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과정이 강조되어 현장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므로 발화시점에서 아직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명령문 형식과 더 잘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사건의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는 성질이 강하며 객관 세계의 모습을 언어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추향보어를 포함한 술어구조 중 ‘了’가 위치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두 문장 간의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劉月華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V+趨向補語+了’의 구문과 ‘V+了+趨向補語’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있어 형식적, 구조적인 방면에서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통사적 특징, 즉 술어 앞에 종결이나 긍정의 어기의 有無, 부사어의 有無 만으로는 의미적인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CCL의 예문을 통하여 그런 현상이 가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도상성의 개념 가운데 ‘순서적 도상성’과 관련된 PTS와 ‘了’의 ‘有界作用’에 근거하여 두 문장 간의 의미자질 중 ‘V+趨向補語+了’는 이미 실현되

30) 劉月華·潘文娛·故韞, 앞의 책, 785-786쪽.

어 동작의 결과가 강조된 형식이며 ‘V+了+趨向補語’는 동작이 이미 실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동작의 시작과 과정이 부각된 표현이라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V+趨向補語+了’와 ‘V+了+趨向補語’ 형식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일대일로 호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의미간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고 보며 후자의 표현방법이 동작의 경로가 더 부각된 표현이며 생동감이 강조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편폭의 제한으로 추향보어 ‘起來’, ‘過來’와 결합하는 몇 가지 상황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나머지 복합추향보어 ‘上來’, ‘上去’, ‘下來’, ‘下去’, ‘進來’, ‘進去’, ‘出來’, ‘出去’, ‘回來’, ‘回去’, ‘過去’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參考文獻】

1. 국내

- 김윤정, 〈정보적 실제성에 근거한 중국어 도상성 연구〉, 《담화와 인지》, 2010.
 김혜경, 〈현대중국어 ‘了’의 TAM표지로서의 해석가능성〉, 《중국어문학논집》, 2011.
 박경송, 〈자본위(字本位)이론과 도상성〉, 《동북아문화연구》, 2010.
 볼프강 클라인 著, 신수송 譯, 《언어와 시간》, 도서출판 역락, 2001.
 이금희, 〈술보구조의 시간범주 상관성 분석〉, 《중국어 연구》, 2011.
 이화영, 〈조사 ‘了’의 용법연구〉, 《중국학논총》, 2006.
 장태원, 〈조사 ‘了’의 어법 기능 연구〉, 《중국어문학》, 1988.
 장호득,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동양학연구소, 2004.
 _____, 〈중국어 ‘VP+PP’와 ‘PP+VP’에 보이는 통사적 변천의 규율과 방향〉, 중국어문
 논총학회, 2004, 제12집.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2. 국외

- 高新凱, 〈‘了’与趨向補語位置關係分析〉, 《理論研究》, 2010.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 1988년 제1기.

- 楊德峰,〈‘動+趨+了’和‘動+了+趨’補議〉,《中國語文》,2001.
- _____,〈用于將來的‘動+了+趨’初探〉,《語言研究》,2002.
- _____,〈時間順序原則與動詞+復合趨向動詞帶賓語形成的句式〉,《世界漢語教學》.
-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商務印書館,1980.
- 呂爲光,〈‘了’의 ‘有界’功能〉,《湖北經濟學院學報》,2007.
- 沈家煊,〈‘有界’和‘無界’〉,《中國語文》,1995.
- 劉月華,《趨向補語通釋》,北京語言大學出版社,1998.
- 劉月華·潘文娛·故鞏,《實用現代漢語語法》,商務印書館,2001.
- 陸儉明,《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北京大學出版社,2005.
- 張幼冬,〈趨向補語‘過來’,‘過去’引申義的語義分析〉,《吉林師範大學學報》第四期,2010.
- 朱德熙,《語法講義》,商務印書館,1982.
- _____,《語法分析講稿》,商務印書館,1980.
- 賈秀英,孟曉琦,〈漢語趨向補語與語法相應結構的對比〉,《山西大學學報》第31卷第5期,2008.
- 胡裕樹·范曉,《動詞研究》,上海教育出版社,1993.

3. 인터넷 검색 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 네이버 중중사전 <http://nciku.cn/search/cc>
- 바이두 <http://www.baidu.com/>
-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http://ccl.pku.edu.cn/Yuliao_Contents_Asp

【中文提要】

漢語作為孤立語具有很強的把客觀世界的面貌直接反映在語言的現象。在包括趨向補語的術語結構中盡管改變了‘了’的位置,但站在學習漢語的人的立場上却很難找到兩個文章之間的意義上的差異,因此本文着眼于此開展了深入研究。包括劉月華在內的很多學者在區分‘V+趨向補語+了’的文章結構和‘V+了+趨向補語’的差異上,提出了形式和結構方面的差異。但是他們所提出的文章

特点, 即僅凭術語前是否有結束或肯定語氣以及是否有狀語是不足以說明含義之間的細微差異, 因此通過CCL例句証明了此類現象爲可變且并非絕對。同時, 本文在圖像性概念中根据与‘順序圖像性’相關的PTS和‘了’的‘有界作用’揭示了兩個文章之間的含義特征中‘V+趨向補語+了’屬於已經實現且強調動作結果的形式, 而‘V+了+趨向補語’中已經實現和未實現兩種情況同時存在, 是突出動作的開始和過程的表現。

因此, ‘V+趨向補語+了’和‘V+了+趨向補語’形式翻譯成韓語時在兩個含義之間存在差異, 可以看出后者表現方法是更多地突出動作路徑的表現。

【主題語】

複合趨向補語, 起來, 過來, 意味資質, 了

투고일: 2012. 10. 15 / 심사일: 2012.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2. 11. 10